

##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

### ■ 이종윤 원로목사

지금으로부터 3,300여 년 전,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았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다.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왜 하나님은 대답을 안하시는지, 혹 주무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조상들에게 행하신 행적이 사실인지 의구심까지 가진 이들도 있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읽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신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호렙산에서 치고 있었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여호와와 사자의 음성을 듣는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은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으나 망하지 않을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애굽 사람의 학대도 내가 보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도 내게 달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면 내가 무엇이라 하리이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신다.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며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 모세의 손을 품에 품으라 하셨다. 꺼내 보니 나병에 걸렸다. 다시 품었다 꺼내 보니 회복이 되었다. 지팡이 사건은 자연의 주 되심을, 손 사건은 생명의 주 되심을 계시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3장15절에서 ‘너희 조상의 주(主) 여호와께서’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주로 계시 하신다. 야훼를 언약의 주로 불렀다. 이스라엘은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에 모음이 생긴 7세기까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4글자의 자음을 adonai로 읽을 뿐 성경에 7,000번이나 나타났다. 구약에서는 야훼를 Kyrios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즉 주로 고백했다.

### 우리의 주(主)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만물을 지배하신다.(The Lord is in control of all things.) 크고 작은 일 뿐 아니라 인류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사상을 정하신다.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신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He speaks with absolute authority.)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라(고전 10:31)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자기 백성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임재하신다.(Lord takes us in love to be his people.)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tabernacled)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권세있게 말씀하시고 임재 하신다.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나?(행 2:36)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하심으로 창조주와 동등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셨다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통해 선포했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물론 부활 · 승천 이전에도 그는 주님이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라고 베드로가 마 16:16절에서 고백했다. 그러나 그가 주님으로 충분히 인식된 것은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되었다. 신 · 인(神 · 人)으로 중보자, 구속주로 그리스도께 속한 주되심은 부활 · 승천 하심으로 충분히 나타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위대성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 가정과 국가, 민족의 주, 교회와 우주의 주 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해야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시니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는 간청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619호] 2018년 11월 17일 발매-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yung Won J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Psalms 6:1-10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How long, O Lord" ..... Pastor
* Hymn .....	263 (I hear the Savior Say)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교사</b>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일(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이완),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르, 비스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b>이종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 “ 기뻐하고 기뻐하라 ”

■ 마 2:1-12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는 온통 보라색으로 장식합니다.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시지 않고는 더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요 3:16).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한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성탄의 이유라면 성탄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1.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  
 하나님은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을 아기가 태어난 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부모에게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야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제사장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예물로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2. 헤롯왕의 반응**  
 예수님의 탄생할 즈음 세상은 새로운 왕이 나기를 대망하는 메시아야를 대망하는 기운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기대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대왕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왕은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 이외는 없다고 여겨 베들레헴 근교의 두 살 미만 남자 아이를 전부 죽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광분한 한 사람의 악행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3.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롯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고 묻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맺는 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셨으니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가장 큰 고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를 때 마침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오늘은 비록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점차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험한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진리의 빛을 비추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없이 자신의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명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이관규 장로

-장로안석년,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목 도 ..... 다 함 계  
성 시 ..... 시 36:7-9 ..... 인 도 자  
찬 송 ..... 20(41) ..... 다 함 계  
기 도 ..... 백도환 집사  
성 경 ..... 마 25:14-30 ..... 인 도 자  
성경통독시상 ..... 말 은 이  
장한 어머니상 시상 ..... 말 은 이  
장로안석년장로집사권사은퇴식 ..... 말 은 이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착하고 충성된 종아" ... 설 교 자  
\* 찬 송 ..... 461(519) ..... 다 함 계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계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김선영 권사  
성 경 ..... 호 9:1-1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란박수강김복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 2:1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특별제직회 / 30일(주) 찬양예배 후 101호에서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 승인을 위한 제직회로 모입니다.
2. 9교구 연합모임 / 1월 1일(화) 오후 12시 베델하우스
3. 공동의회 / 6일(주) 찬양예배 후에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송구영신예배, 신년감사예배 안내 /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한 주간입니다.  
송구영신예배: 1월1일 0시에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12월31일(월) 오후 11시 30분부터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아 회개하며 신년을 기도와 감사로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년감사헌금도 드립니다.  
1월1일(화) 새벽기도회는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별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신년감사예배: 1월6일(주) 새해 첫 주일을 신년감사예배로 드리며 주일예배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김동건(치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김관섭(영상의학)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결 혼</p> <p>1. 진철배 군(전병무 성도, 김홍숙 집사의 장남)과 김연경 양(4교구 김규태 집사, 박미혜 권사의 장녀) / 1월5일(토) 오후 3시30분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 홀(042-823-5220) / 오전 11시30분 교회 출발(버스대절)</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00명	405명	191명	1,496명	145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12/2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 23일	헌 금	35,584,200	
	말씀봉사비		18,010,000
	급 여		33,084,000
	찬양대사례비		12,350,000
	교회학교사례비		9,770,000
	찬양운영비		7,040,000
	선 교 비		33,874,705
	행 사 비		1,281,530
	구 제 비		950,000
	경 조 비		200,000
	비전2020		7,08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3,000,000
	인 건 비		7,943,650
	복리후생비		199,900
	교통통신비		331,050
	수도광열비		292,800
	차량유지비		557,720
	소 모 품 비		275,000
	세금과공과		2,181,820
	잡 비		69,700
	환경유지비		133,400
	수선유지비		367,000
	식당운영비		863,880
	합 계	35,584,200	140,106,155